

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인터넷 매체 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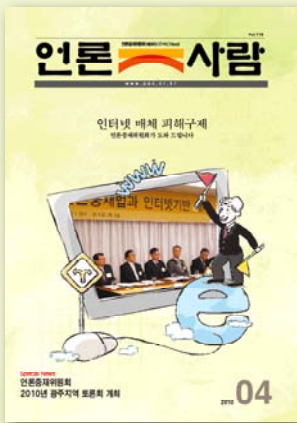
Special News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광주지역 토론회 개최

CONTENTS

2010. April. Vol 118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광주지역 토론회 개최
04	인터뷰	“양극화가 해소되면 분쟁도 줄어듭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06	위원단상	4월과 빨간 장갑 (권태인 위원)
07	직원마당	건기 예찬 (총무팀 김정연)
08	조정후기	부정(父情) (김문중 조사관 변호사)
09	백승찬의 영화세상	이준익 감독과 3편의 사극
10	용어해설	조정결정
11	기고	KBS 보도제작국 이광열기자
12	위원회 소식	
13	사건 처리현황	
14	위원동정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광주지역 토론회 개최



“인터넷 매체 피해구제, 세부 기준 필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일 개정 언론중재법 운용에 관한 광주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선대 신방과 이동근 교수(광주중재부 위원)는 “인터넷기반 매체의 뉴스 기사는 빠른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인터넷 기반 매체 뉴스에 대한 반론·정정보도의 시행방법은 오프라인 매체와 다른 세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는 게재 시간, 게재 위치, 글자 크기와 글자체, 자수 등을 꼽았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에 의한 피해구제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김일환 광주일보 여론매체부장은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일반인들이 올리는 글과 기사를 구분하기 힘들고, 법제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블로그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성 위원장은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개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볼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배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권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언론으로서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보다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언론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 성 위원장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양극화가 해소되면 분쟁도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사
-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비서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간사위원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현)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서울제3중재부, 2002.3.~2003.2.)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국민참여수석 비서관으로 일했다. 공직을 그만둔 후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사회 경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박 소장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책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양극화의 해소가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편집자 주>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실 때를 회고해 본다면?

예민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0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해 말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정치적인 문제로 중재사건들이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선거 후 중재위를 그만두고 국민참여수석으로 일하면서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소송의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사항을 주요 사업중 하나로 추진했었어요. 예를 들어 증감소음 문제 등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 환경문제와 같은 여러 분야의 분쟁들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노력했었습니다.

ADR 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평가한다면?

공직에 있을 때 보니 여러 분쟁 조정기관들이 행정기관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독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법조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정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에 의해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고 있죠. 또 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은 굉장히 제한된 자원들이고, 그런 역량을 갖추기까지 국가의 많은 부분이 투자된 귀한 자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중재부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중재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선두기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분쟁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나 정책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민원

줄어듭니다”

이 발생하는 걸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제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을 몇 만 건씩 모아 놓으면 어느 제도가 문제구나 하는 게 가닥이 잡힙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계약서를 깔끔하게 써 놓으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겠죠. 처음에는 애매하게 해놓고 말로 대충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개인 간에도 계약서를 분명히 해 두자는 거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책이나 규율, 규정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도 설립하신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경제부처가 따로 있고, 사회부처가 따로 있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엮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금융 문제, 세금 문제는 물론 학군을 비롯한 교육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건설을 담당하는 부처만 전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안정적 사회가 되려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중간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사회가 되어야 분쟁도 적어지고 갈등도 적어지죠. 중간층이 없는 8자형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져요. 내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자기가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다이아몬드형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분별 정책이 아닌 국가 예산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 예산안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인터뷰/여운규 차장 사진/김민정(이상 홍보팀)

1933년 소프라노 가수 박경희가 일본 일동레코드에서 한국어로 <애상부>와 <아리랑>을 발표했다. 박경희는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후 월북해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한 이여성의 부인이기도 했다.

동경음대를 졸업하고 1935년 빅터 레코드에 <아리랑 이야기(アリアン 物語)>를 취입한 김안라의 오빠는 당대의 국민가수 김용환이었다. 율계 역시 미모의 여가수 정재덕이며, 남동생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눈물젖은 두만강'을 부른 김정구였다.

1935년 한국 가요사에 여신이 등극했다. 막간가수로 활동하던 목포출신 여가수 이난영이 조선일보가 공모하여 당선된 지방 신민요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그 노래가 식민지 조선인들의 18번이 된 것이다. 이 한 곡으로 '전 국민의 연인'으로 우뚝 선 이난영은 이듬해 일본에서 '오카나코(岡蘭子)'라는 예명으로 히트곡 <목포의 눈물>을 개사한 <이별의 뱃노래(別れの船歌)>를 녹음했는데 이 음반 역시 불티나게 팔렸다. 이난영이 취입한 <백장미소녀(白薔薇の乙女)> 역시 많은 인기를 받은 대표적인 한류곡이다.

1936년 가수가 아닌 무용가로서 많은 인기를 끌던 무용가 최승희는 컬럼비아 레코드에 대표적인 재즈곡 <반도의 무희(半島の舞姫)>와 <축제의 밤(祭の夜)>을 취입하며 전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일본에서 한류가 가능한 데에는 작곡가 고가 마사오(古賀 政男)의 영향이 컸다. 7세에 한국에 건너와 선린상고를 졸업한 고가는 전수린 등 많은 한국 작곡가들과 교류했는데, 초창기 일본에서 발표돼 히트를 치거나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인기를 얻은 가요곡의 작곡, 편곡자 이름에 고가 마사오가 빈번하게 보이는 이유도 반은 한국인이었던 독특한 이력 때문이며, 고가의 엔카곡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의 가요가 결코 이질적인 노래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고가 마사오의 데뷔곡이자 일본 엔카의 시조로 받아들여지는 노래 <슬은 눈물이나 한숨이나(涙か溜息か)>가 한국의 천재 작곡가이자 고가의 친구이기도 했던 전수린의 <고요한 장안>을 표절한 것이라는 시비가 붙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엔카가 거꾸로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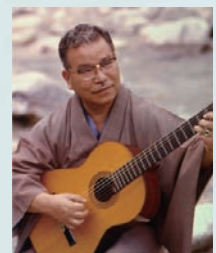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명기의 한류(韓流) 2

김문성(상담교육팀 차장, 국악 칼럼니스트)



▲ 조선악극단 시절의 이난영



▲ 고가 마사오

4월과 빨간 장갑



권태인 위원
(대구중재부, 전 대구방송 보도국장)

늘 4월이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프로야구 팬들이다(올해는 3월말에 개막했지만). 프로야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빨간 장갑의 마술사' 고 김동엽 감독이다. 이 양반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해서 호불호(好不好)가 뚜렷하다 보니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극과 극을 달렸다.

예전에 나는 어느 잡지사로부터 상당한 분량의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의 관계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았는데 마침 그가 한가한 시절이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같이 술도 마시게 됐는데 별난 그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몰라도 17살의 나이차를 넘어 술친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지금은 술을 끊은 지가 꽤 됐지만 당시는 좀 마신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를 잘 안다는 이가 나에게 물었다. "술값은 누가 내냐?"

술값을 내려다 크게 혼이 난 뒤로 나는 그와의 술자리에서 돈을 써 본적이 없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렇지가 없는데..."

그는 나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야구인생 뿐 아니라 좀처럼 얘기하기 어려운 가정사까지 털어 놓았다. 그래도 그는 어떤 경우여라도 남자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SBS가 출범하면서 나는 SBS로 옮기게 됐다. 야구중계를 해야 하는데 누구를 해설자로 하느냐 하는 논의가 계속됐다. 나는 담당 윤 모 PD와 함께 김동엽씨를 추천했다. 그런데 높은 분들이 "그 사람 주사가 대단하다던데..." "수 틀리면 아래 위가 없다며..." 등등의 네거티브 소문들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 PD와 나 김동엽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만 술을 마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면계약을 맺자고 그에게 제안해 그가 받아 들였고 곡절 끝에 그는 당시 최고대우로 해설위원이 됐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당분간 그는 술도 절제했다. 그는 "평생 처음 독립된 책상에서 전용 전화를 써본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런데 방송국 개국과 함께 서로가 바빠서 신경 못 쓰는 사이에 그는 다른 직원들과 자주 술을 마셨던 것 같다. 그래서 계약위반이라고 했더니 계약 이행한다며 우리 두 사람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먼저 차디찬 소주 한 병을 맥주잔 2개에 나눠 따르고 토닉워터 조금 섞고 그의 무시무시한 악력으로 레몬을 짜 넣는다. 처음 한 두 잔은 그 청량감 때문에 보통 원샷을 한다. 몇 순배 돌면 나도 모르게 소주 두 병은 거뜬하게 마시게 된다. 소주병은 쌓여가고, 이때쯤 '어 이상한데' 해봐야 이미 늦었다. 김동엽씨는 나 모르게 우리 직원들 대부분을 이렇게 보내 버린 것이다.

그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전담 이발사였다. 그는 머리를 바짝 밀고 앞머리만 1센티미터 안되게 남기는 해병대 스타일이었다. 자칫하면 박박 밀어야 되는 판이니 이발사가 가는 곳마다 그도 따라가야만 했다. 하루는 이발사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제가 아는 유명인은 감독님 밖에 없는데 제 결혼식에 주례를 봐 주실 수 있는지요?" 그는 호기롭게 그러마고 했다.

결혼식 날짜는 다음날인데 그는 약속을 잊은 채 대취한 상태로 늦잠을 잤다. 다급한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세수도 못한 채 예식장으로 달려갔다. 주례사고 뭐고 생각이 날 리가 있나. 할레벌떡 도착한 그는 난데없이 하객들에게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주소난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하객들 모두가 주민증을 꺼내서 주소난을 세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아는지 하면 하도 못 살아서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을 향해 "신랑은 술 안 먹고 노름 안 하고 일찍 집에 들어오겠는가?" 신부에게는 "신부는 쓸데없는 게 따위는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는가?" 묻고 "주례사 끝"을 외쳤다. 그러자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한다.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에 조금 앞서갔던 사나이 김동엽. 반공정신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약간의 현찰만 있으면 된다던 38파라지 38번 김동엽. 그는 13년 전 4월에 떠나갔다.

걷기 예찬

아침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분주하게 들린다. '저 구두 이쁘다... 그런데 다리 많이 아프겠다.' 신발을 고를 때 모양이 예쁜 신발에서 걷기에 편한 구두로 기준이 바뀌었다. 걷기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나도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으면 항상 걷기를 먼저 생각했다. 준비가 거창하지 않고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걷기 운동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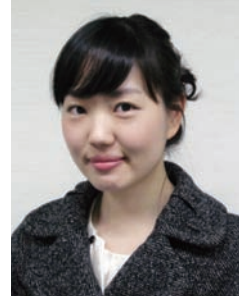
나는 원체 걷기를 좋아하기도 했다. 대학교 시절 집과 한 시간 거리인 학교에서 걸어오려고 발이 편한 신발을 일부러 챙겨가기도 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목적지 역보다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 다녔다. 얼마 전에도 시간 여유가 있다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지하철 세 정거장 거리를 걷다가 물집이 잡힌 적도 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걸어서 두 세 달은 걸리는 길인데 옛 순례자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주변의 풍경도 감상하고,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할 수 있는 길 이어서 나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길이다.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두세 달의 휴가는 언감생심이라 한국의 산티아고 길인 제주 올레길에 갔었다. 제주도를 처음 가 보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올레길 내내 펼쳐지던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고, 차분하게 걷는 내 발걸음의 움직임 느끼고, 조용히 나에게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진 정말 값진 경험이 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다리가 아파서 지름길로 꺾부리면서 걷기도 했지만.

걷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꼭 멀리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주위에는 걷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다. 청계천, 정동길,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삼청동, 효자동, 북촌 한옥마을, 조금 욕심내어 제대로 걷기를 해 본다면 북악산 성곽 길까지.

경복궁 옆 효자동 길을 걸으면서 조그맣지만 특색 있는 가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맛있는 컵케익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는 것도 즐겁다. '나중엔 저 카페도 한번 가봐야지, 저 음식 점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한 달 내내 가도 다 못 갈 정도의 가보고 싶은 곳들을 점찍어 놓기도 한다. 또한 꼬불꼬불한 도심 속 옛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남들은 잘 모를 법한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나만의 아지트를 발견한 듯한 기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한다. 부암동 어디에 가면 야경이 환상적인 곳이 있고, 정동길에는 여름날 친구와 앉아 수다 떨기 좋은 한적한 공원이 있다. 오래된 길들을 걸으면 그곳만의 이야기들이 떠올라 평범한 장소들도 의미 있는 길이 되어 다가온다. 조금 더 걷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정동길을 한 바퀴 돌아 집에 갈 때는 예쁜 가로수길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계절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다.

도심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퇴근 후에 봄내음을 맡으며 뉴요커처럼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걷는 즐거움을 만끽해도 좋을 듯하다.



김정연
(총무팀)

부정(父情)

김문중 조서관(서울제5중재부, 변호사)

10대들의 졸업식 뒷풀이가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 파문이 잠잠해질 때 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고등학생이 지적 장애인을 괴롭히는 동영상에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것이다.

그 동영상에는 한 고등학생이 지적 장애인에게 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많은 언론사가 이 문제의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동영상에 가해자로 등장하는 학생의 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워낙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기 때문에 모두 합쳐 약 16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

신청인의 신청 취지는 간단했다. 신청인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상호 합의하에 연출하여 그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 동영상을 찍은 학생, 장애인 모두가 친한 사이이며, 그저 10대의 장난기로 재미삼아 찍었다는 것이다. 해당 장애인의 처벌불원서, 오락실 주인의 확인서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신청이 접수되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기사를 삭제하였고, 신청인은 대부분의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하지만 한 방송사가 문제였다. 해당 방송사는 공익적인 이유에서라도 기사의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사가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것이 그 방송사이므로 단순히 기사 삭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필자는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방송사는 이러한 처분만으로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청인의 아버지 역시 어린 나이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고 싶다는 부정의 발로였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양 당사자의 갈등은 결국 심리 하루 전 아버지의 신청 취하에 따라 일단 종결되었다.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싶고, 또한 심리 때 방송사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더 안 좋아 질 것 같다는 이유였다.

취하서를 팩스로 받던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노력한 사건인데 결국 신청인이 피해를 적절히 구제받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아들에게 잘못이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자식의 잘못됨을 떠나, 주변의 많은 비난과 책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끈끈한 부정이 신청인 아버지와 통화에서 그대로 전달되었다. 물론 그 부정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몫일 것이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이준익 감독과 3편의 사극



▲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의 한 장면

이준익 감독은 사극과 현대극을 번갈아 만들어왔지만, 대중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건 사극이었다. <황산벌>(2003)로 예상을 깨고 3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으며, <왕의 남자>(2005)로는 '1000만 클럽'에 가입했다. 4월 29일 개봉하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은 이준익 감독의 세 번째 사극이다.

이준익 사극의 시선은 왕과 관료와 장수의 부근을 맴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는 이름 없는 민초들이다. 먹고 자고 싸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이 민초들이야말로 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이준익 사극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황산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다투던 660년을 배경으로 했다. 김춘추는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 나당연합군을 결성해 백제를 압박하지만, 백제에는 명장 계백이 있었다. 계백이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 처자를 죽이고 떠나려하자 계백의 처는 "전쟁을 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것이 뭐인데 니가 내 새끼들을 죽여"라고 일갈한다. 이어 "호랑이는 가족 때문에 디지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디지는거여!"라며 고관대작들의 헛된 명예욕을 조롱한다.

<왕의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영화는 조선 연산군 치세기에 펼쳐진 이야기지만, 정작 주인공은 왕을 풍자하다 궁궐에 들어와 왕을 위한 연희를 펼치는 광대 장생과 공길이었다. 광대들은 왕 앞에서 탐관오리를 풍자하는 공연을 벌이고, 왕은 이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자신의 예술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생은 따뜻한 음식과 안락한 침구가 제공되는 궁을 떠나려 한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은 박흥용 화백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2년의 조선. 맹인 검객 황정학과 왕족 출신 이몽학은 '대동계'를 만들어 왜구에 대항하지만, 조정은 오히려 이들을 역모자로 본다. 이몽학은 스스로 대동계의 수장이 돼 부패한 조정을 뒤엎은 뒤 왕이 되려하고, 황정학은 이몽학을 막으려한다. 이몽학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견자는 황정학을 따라다니며 검술을 익힌다. 원작이 견자의 성장담에 가까웠던 반면, 영화는 황정학, 이몽학, 견자, 이몽학의 여인 백지 4명의 인물에 고루 성격을 분배했다.

영화가 당대의 집권층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극도의 불신과 조롱이 담겨있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은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사극 중에서도 조정을 가장 무능하게 그린 축에 속할 것이다. 서인이 왜군의 침략 가능성을 임금에게 간언하자, 동인은 그럴 리 없다고 반대한다. 반대의 근거는 오직 상대 당파의 당론이라는 이유뿐이다. 그 사이 왕은 신료들의 분열을 극복하고 중심 잡힌 의견을 제시하기는커녕, 애완용 원숭이와 노닥거린다. 정작 반군이 관아를 습격하고 왜군이 한양으로 향하자 왕은 한 일도 없이 신경질만 낸다.

감독은 '거대 이념'에 대한 맹신도 비웃는다. "대동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몽학은 거대 이념의 구현이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몽학의 말에 황정학은 "나라를 살려? 언제 나라가 뉘졌나?"고 비웃는다. 참수당한 대동계 수장의 목을 본 백성들은 "지 식구들 몸도 못 챙기면서 무슨 대동계야"라고 말한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은 이준익 감독의 사극 중에서도 가장 허무주의의 정조가 짙게 깔린 영화다. 임금이 피난을 떠난 텅 빈 궁궐에서는 역도와 왜군이 서로에게 칼을 든다. 동성애와 광대라는 비주류적인 소재를 보기 위해 몰려든 <왕의 남자>의 1000만 관객이 다시 한 번 이 냉소적인 사극을 찾아 극장가를 찾을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기자)



직권조정결정

지난 호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초기에는 이처럼 합의가 안 되는 사건에 대해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져 마침내 1996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조정결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중재부가 당사자의 이익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언론중재법 제22조)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결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정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지고, 중재위원회는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라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중 어느 한 쪽이라도 중재부의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며,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사는 반드시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홍보팀)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통신위성시대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윌리엄 A. 해친, 제임스 F. 스코튼 지음 | 이동근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63페이지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동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중재위원)가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30여 년째 명성을 유지해 온 윌리엄 해친(위스콘신대학교 석좌교수)의 「The World News Prism: Global Information in a Satellite Age」를 번역했다. 뉴스 보도의 새로운 도전과 위기, 저널리스트의 취재보도 방식 등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저널리즘적 측면을 강조했다. 국제뉴스의 흐름을 가로막거나 저널리스트와 수용자를 갈라놓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이, 경제적 격차, 지리적·인종적 분열 등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발도상국의 중대한 사건·사고에 주목했으며 특히 공동저자인 제임스 스코튼(마케트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이 풀브라이트 재단 지원 방문 학자로 상하이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반영했다.

국제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남아시아의 지진과 쓰나미 등 엄청난 재난에 뉴스 미디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지구촌 미디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터넷·블로그·가정용 캠코더 등 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뉴스취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유일상 지음 | 사회평론 | 575페이지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중심이 정보와 콘텐츠 및 인터넷 포털로 그 초점이 이동됨에 따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 조건 및 저작권 법익의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의 문제와 퍼블리시티권의 법리들을 논한다.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및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종합하여 매스미디어 학도들이 저작권법을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저자는 제1부 매스미디어와 언론법제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제2부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한계에 대해 살핀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저작권과 사생활권의 중간 영역에 놓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다. (정책연구팀)



▲ 필자가 직접 그린 캐리커처

KBS 보도제작국 이광열기자 알량한 알 권리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푸켓을 휩쓸고 지나갔던 2004년 말, 난 사회팀에서 ‘까라면 까는’ 막내 기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라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까닭에 사회팀에선 그다지 바쁠 일이 없었는데, 생존자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나도 분주해졌다. 생존자들의 귀국은 그들의 근황과 안녕을 전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쓰나미가 덮쳐오던 실감나는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난 다른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인천 공항에 ‘전진 배치’되었다.

공항은 아예 기자들에 의해 ‘점령’돼 있었다. 그러나 검색대 너머 공항 CIQ는 출입이 제한돼 있었다. 그 많은 기자들이 공간이 넉넉지 못한 CIQ를 점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기자단은 풀(pool)을 꾸리기로 했다. 한 팀이 촬영한 그림과 인터뷰를 모든 방송사가 나눠 갖는 식이다. 논의 끝에 다른 회사의 촬영기와 함께 내가 CIQ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다.

우리의 ‘임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부상자의 촬영과 인터뷰였다. 이윽고 비행기 문이 열리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승객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침대에 실려 나왔다.

물벼락의 지옥 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 돌아온 그녀에게, 촬영기자는 일단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찍는 걸 알 수도 없을 테고, 더욱이 초상권 운운할 일도 없으니 사전 양해를 구하는 일은 가볍게 생략되고 말았다. 그림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내가 제 역할을 할 차례였다. 난 마이크를 바짝 갖다 대고 묻기 시작했다.

“쓰나미 당시 상황이 어땠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해주세요.”

방송사들 대표로 취재하고 있었으니 책임감이 더 컸던 것인지도 모른다.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느꼈음에도, 자못 매몰차게 그녀를 물어붙였다. 결국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그만 좀 물어 보세요…”

동시에 그만 펑펑 터져 버린 그녀의 울음소리…. 난 순간 마치 뭔가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서야 생각했다. ‘내가 대관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런 종류의 경험은 나 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후배는 경찰의 안내로 어떤 사건의 피의자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피의자의 아무 죄 없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영혼이 조금씩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또 다른 후배는 성범죄를 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한 한 소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부모에게 인터뷰를 청했다가 모진 꼴을 당하기도 했다.

방송 기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취재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입사 초기 “방송은 그림”이고 “방송은 살아있는 녹취”라고 교육받으면서, 취재 대상에 대한 배려보다 ‘생생한 취재의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는 까닭이다.

갈등의 끝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전가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이다.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의 일부 부도덕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자위하는 것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에서도, 난 불편한 화면을 마주한다. 비통함 속에서도 찍지 말라는 뜻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사래를 치는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방송되고 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시청자가 이런 장면까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는 사실 실체도 없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직업의식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만에 하나, 그것을 요구하는 시청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방송에 의해 훼손당하는 이들의 인권에 비하면 그것은 도리어 ‘알량한 알 권리’여야 하는 게 아닐까.

창립 30주년 기념엽서 발행 확정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엽서가 내년 3월 31일자로 발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4일 기념우표 및 기념엽서 발행에 대한 심의회의를 열어 기념엽서 발행을 결의했다. 기념엽서는 통상엽서에 위원회 창립30주년 기념 엠블럼이 인쇄되는 형태로 제작되며, 20만부가 발행될 예정이다.

중재부장 11인 위촉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공석이 된 중재부장 11인이 3월 25일자로 새롭게 위촉되었다. 위촉된 중재부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소속 법원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서울 제3중재부	강 영 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0. 3. 25. ~ 2012. 8. 31.
서울 제4중재부	정 준 영	"	"
서울 제5중재부	양 현 주	"	2010. 3. 25. ~ 2011. 9. 1.
서울 제7중재부	이 림	"	2010. 3. 25. ~ 2012. 8. 31.
대구중재부	정 용 달	대구지법 부장판사	"
대전중재부	이 승 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
경기중재부	정 일 연	수원지법 부장판사	"
강원중재부	박 흥 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전북중재부	정 재 규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 3. 25. ~ 2011. 3. 30.
경남중재부	김 형 천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 3. 25. ~ 2012. 8. 31.
제주중재부	박 재 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 3. 25. ~ 2011. 3. 30.

중재위원회 트위터 개설

언론중재위원회 트위터(@pac_news)가 3월 31일자로 개설되었다. 20만명이 넘는 국내 트위터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된 트위터에는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을 비롯한 위원회 관련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 초청 간담회

중재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성 위원장과 충북 중재부 위원 및 지역 언론사 대표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충북지역 언론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법규자문위원회 위촉장

권 성 위원장은 지난 5일 새로 위촉된 법규자문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지역 중재부장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법규자문위원회는 중재위원회의 각종 규칙 및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3월말 현재 조정신청 992건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3월까지 모두 99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221건, 조정결정 63건(동의 50건, 이의 6건, 계속 7건), 조정불성립결정 46건, 기각 68건, 취하 588건(피해구제 497건), 계류 6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4.4%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238건, 신문 158건, 방송 56건, 뉴스통신 16건, 잡지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3월까지 41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40건의 중재결과와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3건, 반론청구 15건, 추후청구 2건, 손배청구 1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3월 22일 열린 2010년도 제3차 회의에서 자체심의 한 언론보도 중 총 14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사생활 침해 1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1건, 자살자 신원공개 12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7건, 일간지 5건, 뉴스통신 및 월간지가 각 1건이다.

제3차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국내 초전도체 분야의 석학인 모 대학 물리학과 교수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실명 및 소속대학을 공개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중점 논의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세계적인 과학자의 자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며, 연구실적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국내 대학의 문제점이 표출된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보도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발족 이후 4월 15일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기간행물 445개 매체를 자체 심의한 결과 총 101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66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9건, '광고제한' 위반 3건, '외부기고' 위반 23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결정 1건, 경고 45건, 주의 39건, 권고 16건이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6차 회의 까지 경고문게재 2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기각 2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3월까지 677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안내가 50건, 타기관 안내가 45건, 재상담 예정 32건, 법적절차 안내 24건, 자체종결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374건, 인터넷신문 295건, 일간신문 278건, 방송 153건, 주간신문 123건, 뉴스통신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3월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13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는 교육연수기관 6건, 언론사 4건, 지자체 3건이다.

COMMITTEEMEN



「가등기·대물변제」, 「물권법 강의보충서」 출간

권 성 위원장은 「가등기·대물변제」와 「물권법 강의보충서」를 각각 출간했다. 「가등기·대물변제」는 가등기에 관련해 권 위원장이 발표한 6편의 논문과 함께 가등기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물변제 예약의 법률적 성질을 다룬 한편의 논문을 함께 실어 엮은 책이다. 또 「물권법 강의보충서」는 인하대 로스쿨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권 위원장이 물권법을 강의하며(2009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자료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들이 조사해 제출한 판례분석과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등을 모아 엮은 강의보충서다. 물권법 강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유익선 위원(서울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사진 왼쪽)은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개정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산정,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문협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참석

차재영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 사진 맨 오른쪽)은 지난 6일 한국신문협회가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제54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역 미디어」 출간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3월 12명의 저자들과 공동으로 「지역미디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역미디어 환경 △지역미디어 산업 △지역미디어 미래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미디어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2010년 민사합의·항소부 워크숍 주제발표

양현주 중재부장(서울제5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년 민사합의·항소부 워크숍”에 참석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항소심 운영’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경남대 석좌교수 임용

최충웅 위원(서울제7중재부, 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은)은 3월 1일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석좌 교수로 임용되었다.